

동구-광주우체국,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고독사 예방·복지 위기가구 조기 발굴 위기 징후 150여 가구 매달 선정·발송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고독사 예방과 복지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우체국과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는 동구에서 복지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복지

사업 안내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 우편서비스로 방문·전달하며 미리 준비된 '위기조사 점검표'에 따라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 동구에 회신하는 협력 사업이다.

위기조사 점검표는 ▲대상자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부재중임

에도 불이나 TV가 켜져 있다 ▲집 주변에서 악취나 나거나 벌레 등이 보인다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회신받은 위기조사 점검표를 토대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위기가구를 방문·상담하고, 신속·정확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 등기 우편은 단전, 단수, 통신비·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에

따라 위기 징후가 있는 150여 가구를 매달 선정해 발송되며 '복지 등기 우편'을 전달할 40여 명의 우체국 집배원을 위기가구발굴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동구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행정 업무"라면서 "광주우체국과 함께 가까운 이웃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광산구 공유주차장 평균 이용률 64%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공유주차장이 60% 이상의 평균 이용률을 보이며 공유를 통한 도심 주차난 완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산구는 주차공간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참여 시설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 이용률이 64.4%로 나타났다. 시간당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로,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총 11곳에 달했다.

일부 주변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전반적으로 공유주차장이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및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산구는 도심 곳곳의 주차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공유로 풀어보려는 시도다.

관내 종교시설,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이 10면 이상을 기준으로 유휴주차공간을 하루 7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3년 이상 개방하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CCTV 설치 등 최대 5천만 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가 지난해 5~6월 당시 운영 중이던 공유주차장 15곳의 이용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주차 공간 나눔, 공유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산구는 공유주차장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참여 시설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는 4월28일까지 진행한다.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통지도과(062-960-8988)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관기자

남구, 으뜸효 노래자랑 개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으뜸효 노래자랑' 9개월 대장정에 나선다.

남구는 "그 노래, 그 사연"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효와 관련한 사연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으뜸효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으뜸효 노래자랑'은 기존 노래자랑과 함께 3년째 이어지면서 참가 자격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개인과 단체로만 각각 출전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 및 단체 모두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열리는 대회에서는 효와 관련한 사연이 있는 노래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으뜸효 노래자랑' 무대는 4월 5일 예선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사)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 스튜디오에서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5~6팀이 출전해 월말 및 상·하반기 본선 무대를 향한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며, 오는 12월에는 총 10개팀이 연말 결선 무대에 올라 올해 최고의 효행 가수왕에 도전한다.

노래자랑 참가 희망 주민은 거주지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고령정책과(062-607-3464), (사)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062-361-094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희태기자



서구는 조직 내 학습·연구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 개발로 구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MZ세대 7~8급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와 경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개발 연구모임 9팀을 선발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혁신어벤져스·정책개발 연구모임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는 조직 내 학습·연구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 개발로 구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MZ세대 7~8급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와 다양한 현안 과

제를 주제로 한 정책개발 연구모임 9팀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팀 53명의 연구모임 회원들이 모여 각 모임별로 올해 활동방향과 연구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직자 정책개발과는 달리, 이번 연구모임은 ▲민선8기 공약 관련 주제 선택 ▲소

관부서 검토 결과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신규시책 및 국비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구는 국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며, 9월에 최종 과제 발표를 통해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가영기자

북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유공 정부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산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이번 상을 수여했다.

북구는 지난 2021년부터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와 보건소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내실 있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

창을 수상하게 됐다.

북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의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올해 중순까지 보건소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도 총사업비 33억여 원을 투입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이 추진 중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보건소는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다양한 기술 요소가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그린사업들을 발굴·추진해 우리 북구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회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장차 '땡땡'...군공항 이전 '담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